

**상황설명:** 미령이 주민을 조사하다 발견한 주민이 쓴 것으로 보이는 반체제적인 글.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

**미령**

좋아요. (상자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며) 사실 테이프랑 책 몇 권 복사한 건  
별거도 아니죠.  
(종이 뭉치를 건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자료를 읽더니)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미령**

아니요 아직.  
적성국에서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된 빠라가 왜 김주민씨에게서 발견된 걸까요?  
(종이 뭉치를 보는 주민을 보며) 그것도 150장이나,  
그중에는 펜 자국이 남은 것도 있더군요. 마치 원본같이...

**주민**

(체념한듯)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령**

다행히 저만 알고 있습니다.  
(씹쓸한 표정과 아련한 눈으로 한숨을 내쉬며) 주민씨는 어릴 적부터 유별나긴 했죠.  
청소나 식사 때문에 도련님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보는 책이 쌓여 있던가, 영화가 틀어져 있었고  
한구석에는 직접 쓰신 글이 쌓여있었죠.  
그 때 연습한 글로 이럴 줄이야.

**주민**

분명 밀봉해서 소각처리 신청했는데...

**미령**

담당자도 징집이 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종이들을 넘겨보며) '동아시아 체제의 모순을 국민들에게 고한다'  
'핵심계층의 부패를 국민들에게 고한다'... 재밌네요.  
(자세를 고치며) 김주민씨는 아버지가 동아시아 중앙회의에 속한 핵심계층의 자제입니다.  
본인은 제 1국립대학에서 미학과 정치학을 공부한 엘리트고요.  
그런 분이 왜 반체제적 압류품을 빼돌리고 반동적 저술활동을 한겁니까?

**주민**

국민의 5%에 해당하는 핵심계층에게는 선전물 뿐만 아닌  
단순한 예술품도 허용이 됩니다.

**미령**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주민**

미화부에서 검열하는 압류품의 대부분이 핵심계층에게 권장된 예술품이라는 건 아십니까?

미령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주민**

오퍼센트에겐 권장, 구십오퍼센트에겐 금기... 어떻습니까.

**미령**

그럼 검열품이 아니라 핵심계층의 예술품을 수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핵심계층의 예술품은 이미 내가 태어날 무렵부터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령**

왜죠?

**주민**

그들에게 예술은 이제 지겨운 것에 불과합니다.

저급한 쾌락을 쫓아 낮에는 사냥을 하고

밤에는 술과 향정신성 약품에 취해 추태를 부리죠.

그들은 벽에서 그림을 떼어 낮에 사냥한 짐승의 머리를 걸고,

벽장 속 비디오와 책을 치워 술을 채우죠.

그 누구도 머리 쓰는 일을 즐기지 않아요.

그들이 낮에는 피에, 밤에는 화학물질에 취해 있는 동안.

아랫사람들은 아부를 떨며, 백지에 서명을 받아내 이득을 취하고 있죠.

내가 왜 제 1 국립대학을 수석 졸업하고도 중앙회가 아닌 미화부에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도 멀어져 취할 수도 없죠.

(미령을 직시하며) 잘 아시지 않습니까.